

Session 20 The Lifestyle of a Disciple of Jesus (Lk. 10-11)

제 20 강 예수님의 제자의 삶 (눅 10-11 장)

I. JESUS SENT OUT THE 70 (LK. 10:1-11)

예수님이 70 인을 보내시다 (눅 10:1-11)

- A. Jesus sent out the 70 in twos to train more disciples and to extend the mission beyond the Twelve (10:1-11).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endings (Lk. 9 and Lk. 10). There is no mention of the location or length of this mission. It is estimated at 2-3 months. For more of how Jesus sent His disciples out, see *Session 14 The Commissioning of the Twelve Apostles (Mt. 10)*.

예수님은 더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열 두 제자 이상으로 전도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70 인을 두 명씩 보내셨다 (눅 10:1-11). 예수님이 사역을 보내신 두 번에는 많은 유사한 점들이 있다 (눅 9 장, 10 장). 이 전도 사역은 장소나 기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대략 2-3 개월 정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보기 원하면, 제 14 강 열두 사도를 세워서 보내심 (마 10 장)을 참고하라.

¹...the Lord appointed seventy others...and sent them two by two before His face into every city and place where He Himself was about to go...³“I send you out as lambs among wolves...⁵But whatever house you enter, first say, ‘Peace to this house’...⁷And remain in the same house, eating and drinking such things as they give, for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wages...⁹Heal the sick there, and say...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to you.’¹⁰But whatever city you enter, and they do not receive you...say, ¹¹‘The very dust of your city...we wipe off against you...’” (Lk. 10:1-11)

¹...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³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⁵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⁷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⁹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¹¹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 (눅 10:1-11)

- B. *Sheep among wolves*: This highlights the vulnerability and danger of this mission (Mt. 10:16).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것은 이 전도 사역의 취약성과 위험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마 10:16).

- C. *Worthy of wages*: Those who help to bring the gospel to others in a full-time way are worthy of financial support (Mt. 10:10; 1 Cor. 9:3-18; Gal. 6:6; 1 Tim. 5:18; 3 Jn. 5-8).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임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 10:10; 고전 9:3-18; 갈 6:6; 딤후전 5:18; 요삼 5-8).

- D. *Heal the sick*: Healing opens doors for kingdom opportunities and is a sign of the kingdom.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표적이 된다.

- E. **Wipe the dust off:** This was a symbolic warning of judgment to cities and villages that rejected the dramatic witness of the gospel through the 70 who healed the sick and testified of the kingdom.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는 70 인의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 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을 거절한 성읍과 동네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경고였다.

The final judgment will be less severe on the people of Sodom, Tyre, and Sidon than on those who rejected the message of the 70 (10:12-14). Capernaum was Jesus' headquarters, and Chorazin and Bethsaida were neighboring cities. The Gentile cities of Tyre and Sidon were judged for rejecting God's word and people in the Old Testament (Isa. 23:1-18; Ezek. 26-28; Joel 3:4-8; Amos 1:9-10).

소돔과 두로, 시돈의 사람들에게 내렸던 최후의 심판은 70 인의 제자들의 메시지를 거절했던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10:12-14).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 근거지였고, 고라신과 벳새다는 이웃 도시였다.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해서 심판을 받았던 곳이다 (사 23:1-18; 겔 26-28; 욥 3:4-8; 암 1:9-10).

¹²“...it will be more tolerable in that Day for Sodom than for that city. ¹³“Woe to you, Chorazin! Woe to you, Bethsaida! For if the mighty works which were done in you had been done in Tyre and Sidon, they would have repented... ¹⁴It will be more tolerable for Tyre and Sidon at the judgment than for you. ¹⁵And you, Capernaum... will be brought down to Hades. (Lk. 10:12-14)

¹²...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¹³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회개하였으리라 ¹⁴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¹⁵ 가버나움아 네가...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눅 10:12-14)

- F. The measure of judgment increases with greater privilege and opportunity to receive God's truth (Lk. 12:47-48). There are various spheres of divine evaluation on the last day with corresponding blessing or judgment —on individuals (Mt. 16:27; Lk. 12:47-48), cities (Mt. 11:22-24; Lk. 10:12-14), nations (Mt. 25:31-33), generations (Lk. 11:31, 50-51), and even families (Ezek. 44:15).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더 큰 특권과 기회가 있던 곳에는 심판의 크기가 커진다 (눅 12:47-48). 마지막 때에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축복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개인 (막 16:27; 눅 12:47-48), 도시 (마 11:22-24; 눅 10:12-14), 국가 (마 25:31-33), 세대 (눅 11:31, 50-51), 그리고 심지어 가족에도 (겔 44:15) 있을 것이다.

⁴⁷And that servant who knew his master's will, and did not...do according to his will, shall be beaten with many stripes. ⁴⁸But he who did not know, yet committed things deserving of stripes, shall be beaten with few. For everyone to whom much is given, from him much will be required; and to whom much has been committed, of him they will ask the more. (Lk. 12:47-48)

⁴⁷ 주인의 뜻을 알고도...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⁴⁸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눅 12:47-48)

II. JOY IN BEING USED BY GOD (LK. 10:17-20)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 (눅 10:17-20)

- A. The 70 rejoiced over being used in a powerful way to cast out demons (10:17-20).

70 인의 제자들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에 놀라운 방식으로 쓰임 받은 것에 기뻐했다 (10:17-20).

¹⁷Then the seventy returned with joy, saying, “Lord, even the demons are subject to us in Your name.” ¹⁸And He said to them,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¹⁹Behold, I give you the authority to trample on serpents and scorpions, and over all the power of the enemy, and nothing shall by any means hurt you. ²⁰Nevertheless do not rejoice in this,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to you, but rather rejoice because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Lk. 10:17-20)

¹⁷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¹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¹⁹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²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눅 10:17-20)

- B. *I saw Satan fall*: Jesus seemed to be describing a vision that He had showing a defeat of Satan related to the 70 casting out demons (11:22). Each exorcism demonstrates a defeat of Satan.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은 70 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과 관련된 사탄의 패배의 환상을 보신 것으로 볼 수 있다 (11:22). 모든 축사를 통해 사탄의 패배가 나타난다.

- C. *Nothing shall hurt you*: Jesus gave the 70 a promise to escape all harm in this particular mission that had a unique purpose. This protection was not inclusive of all believers for all times as many of God’s servants have been martyred throughout the book of Acts and Church history. “Snakes and scorpions” speak of demonic forces (Gen. 3:15; 2 Cor. 11:3; Rev. 12:9-15; 20; cf. Ps. 91:13).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70 인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번 임무에서 모든 해악으로부터 무사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이러한 보호하심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항상 있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부터 교회사를 아울러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해왔기 때문이다. ‘뱀과 전갈’은 마귀의 세력을 말한다 (창 3:15; 고후 11:3; 계 12:9-15; 20; 비교 시 91:13).

- D. *Names are written in heaven*: Jesus pointed His disciples to the “big picture” to help them keep things in right perspective. The greatest reason for rejoicing is that we are in God’s family forever. God keeps records in His books (Dan 7:10; cf. Ex. 32:32-33; Ps. 69:28; 87:6; 139:16; 87:6; Isa. 4:3; Dan. 12:1; Mal. 3:16-17; Lk. 10:20; Phil 4:3; Heb. 12:23; Rev. 3:5; 13:8 17:8; 20:12, 15; 21:27).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큰 그림’을 보이시며 그들이 올바른 관점에 머물도록 하셨다.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책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신다 (단 7:10; 비교 출 32:32-33; 시 69:28; 87:6; 139:16; 87:6; 사 4:3; 단 12:1; 말 3:16-17; 눅 10:20; 빌 4:3; 히 12:23; 계 3:5; 13:8 17:8; 20:12, 15; 21:27).

- E. The theme of joy continued as Jesus expressed His joy that the Father revealed to weak disciples the truth about Jesus and His power over Satan. Understanding of Jesus is a glorious privilege. The wise in this context were the scribes and Pharisees (1 Cor. 1:19-25), and the babes were His weak disciples from man’s point of view. He rejoiced in the privilege that His disciples had in knowing Him and partnering with Him in His work. Luke mentioned all three Persons of the Trinity (10:21).

기쁨이라는 주제는 계속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사단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신다. 예수님에 대해 깨닫는 것은 영광스런 특권이다. 이 본문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고전 1:19-25), 어린 아이들은 그분의 연약한 제자들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특권, 곧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분과 동역하는 특권에 대해 기뻐하셨다. 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언급하였다 (10:21).

²¹...*Jesus rejoiced in the Spirit and said, “I thank You, Father...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in man’s eyes]...and revealed them to babes [in man’s eyes]...²²All things have been delivered to Me by My Father, and no one knows who the Son is except the Father...*

²³*Blessed are the eyes which see the things you see; ²⁴for...many prophets and kings have desired to see what you see...and to hear what you hear, and have not heard it.” (Lk. 10:21-24)*

²¹...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것을 [인간의 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인간의 눈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²²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²³...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²⁴...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눅 10:21-24)

- F. *These things*: This speaks of Jesus’ unique relationship with God as the only Son and the disciples’ privileged relationship to God who empowered them to participate in advancing His kingdom.

이것을: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유일무이한 관계,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이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과의 제자들의 특권적인 관계를 말한다.

- G. *All things delivered*: Jesus possesses all knowledge about the Father and all authority (Mt. 28:18), which includes His right to evaluate every person in human history (Jn. 5:22, 27).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권세를 갖고 계신데 (마 28:18),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개인을 평가할 권리도 포함하는 것이다 (요 5:22, 27).

- H. **Blessed are the eyes which see:** Jesus revealed the real privilege of being His disciple. The realities of discipleship can be difficult, but the rewards far outweigh the difficulties (Rom. 8:18). “Seeing” includes more than physically seeing Jesus’ miracles; it emphasizes spiritually understanding His message and the importance of the events taking place related to His life, death, and ministry. A new era in redemptive history had begun.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의 진정한 특권을 알리셨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현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상급은 어려움보다 훨씬 큰 것이다 (롬 8:18). ‘보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삶, 죽음, 그리고 사역에 관련되어 일어난 사건들의 중요성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한다. 구속사적인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III. THE FOUNDATIONS OF DISCIPLESHIP: THE TWO GREAT COMMANDS (LK. 10:25-42)

제자도의 토대 : 두 개의 큰 계명 (눅 10:25-42)

- A. Jesus continued to teach on discipleship (10:25-42). He used a lawyer’s question as the context to highlight the primary issues in walking out practical discipleship. First, Jesus taught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hat focused on importance of the second great commandment (10:30-37), and then He honored Mary of Bethany in highlighting the first commandment (10:38-42).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신다 (10:25-42). 그분은 제자도를 실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교사의 질문을 사용하여 설명하셨다. 먼저,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둘째 계명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10:30-37), 그리고 나서 베다니의 마리아를 높이시며 첫째 계명을 강조하셨다 (10:38-42).

- B. The lawyer’s question and Jesus’ answer to it (10:25-28): Jesus answered a question by asking another question (10:26). The lawyer spoke of the two great commands (Deut. 6:5; Lev. 19:18).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10:25-28):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하심으로써 질문에 응답하셨다 (10:26). 율법교사는 두 개의 큰 계명을 이야기했다 (신 6:5; 레 19:18).

²⁵...a certain lawyer...tested Him, saying, “Teacher,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²⁶He said to him, “What is written in the law? ...”²⁷So he answere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with all your strength,’ and ‘your neighbor as yourself.”²⁸He said, “You have answered rightly; do this and you will live.”²⁹But he...said, “Who is my neighbor?” (Lk. 10:25-28)

²⁵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²⁶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리...²⁷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²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²⁹ 그 사람이 ...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눅 10:25-28)

- C. The way to receive eternal life is the same in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salvation is by grace through faith that works by love (Eph. 2:8-9; cf. Gal. 5:6). Sometimes the Scripture emphasizes *faith*, and at other times it emphasizes *love*. Setting our heart to love God and having faith are essentially the same, as it is faith that is demonstrated by love for God and people.

영생을 얻는 길은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동일하다- 구원은 은혜로,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얻는다 (엡 2:8-9; 비교 갈 5:6). 성경은 때로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랑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는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⁶*For in Christ Jesus... [what avails is] **faith working through love.** (Gal. 5:6)*

⁶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6)

- D. The lawyer's next question made a distinction between a neighbor and a non-neighbor (10:29). He would have seen his neighbor as another Jew, but not a Gentile, and especially not a Samaritan.

율법교사의 다음 질문은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를 구분하였다 (10:29). 그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여겼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니었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인은 더욱 아니었다.

IV.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LK. 10:30-37): THE SECOND COMMAND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눅 10:30-37): 둘째 계명

- A. Jesus spoke a parable to correct the lawyer's racist understanding of who his neighbor was. He wanted the lawyer to see that love requires action (Jas. 2:15-16; 1 Jn. 3:17-18).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비유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종차별적 이해를 고쳐주셨다. 그분은 율법교사가 사랑은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다 (약 2:15-16; 요일 3:17-18).

³⁰*Then Jesus answered... "A certain man went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and fell among thieves, who...wounded him...leaving him half dead. ³¹Now...a priest came down that road. And when he saw him,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³²Likewise a Levite...passed by on the other side. ³³But a certain Samaritan...when he saw him, he had compassion. ³⁴So he...bandaged his wounds...he set him on his own animal, brought him to an inn...³⁶So which of these...was neighbor to him who fell among the thieves?"³⁷ And he said, "He who showed mercy on him." Then Jesus said to him, "Go and do likewise." (Lk. 10:30-37)*

³⁰ 예수께서 대답하여...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³¹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³²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³³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³⁶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³⁷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눅 10:30-37)

- B. The road from Jerusalem to Jericho was 17 miles—it was isolated and dangerous because of many thieves. Priests were spiritual leaders in the community and should have shown compassion since it was clearly commanded in the Scriptures which they read often. Levites assisted the priests in the mundane tasks related to the temple and in sacrificial duties.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17 마일(약 27.5km)이었다. 이 길은 한적했고 많은 도적들로 인한 위험한 지역이었다. 제사장은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였고 여기서 공흠을 베풀었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자주 읽는 성경에 명확히 명령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위인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성전과 희생 제사에 관련해서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다.

- C. This Samaritan had compassion even in the face of mutual hatred and racial animosity between Jews and Samaritans (Jn. 4:9; 8:48) plus the cost and inconvenience in helping a stranger.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서로 증오하는 인종적 적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흠을 베풀었고 (요 4:9; 8:48), 또한 낯선 이를 돕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불편을 감수했다.

V. **EXTRAVAGANT DEVOTION TO JESUS: THE FIRST COMMAND (LK. 10:38-42)**
예수님을 향한 아낌 없는 헌신: 첫째 계명 (눅 10:38-42)

- A. Mary, a single young woman, was never mentioned in Acts. She was not known in the courts of man for her ministry, but she will be known forever in the courts of heaven for her love for Jesus.

젊은 독신 여성인 마리아는 사도행전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인간의 공정에서 알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하늘의 공정에서는 그녀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³⁸...*Martha welcomed Him [Jesus] into her house.* ³⁹*She had a sister called Mary, who also sat at Jesus' feet and heard His word.* ⁴⁰*But Martha was distracted with much serving, and she approached Him and sai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s left me to serve alone? Therefore tell her to help me."* ⁴¹*Jesus answered and said to her, "Martha, Martha, you are worried and troubled [bothered; NAS] about many things.* ⁴²*But one thing is needed, and Mary has chosen that good part, which will not be taken away from her."* (Lk. 10:38-42)

38...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⁴⁰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⁴¹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신경쓰나; NAS 번역] ⁴²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38-42)

- B. **Sat at Jesus' feet:** The Spirit emphasized that Mary sat at Jesus' feet to hear His Word (10:39). Each time we see her, the Spirit highlights her as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Lk. 10:39; Jn. 11:32; 12:3). Only as we feed regularly on His Word will we stay fresh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It is not enough to study the Bible—we must talk to God as we study. Bible study is meant to lead us to conversation with God by giving us the “conversational material” for our prayer life. (For free notes, *How to Pray-Read the Word*, see <https://mikebickle.org/resources/resource/3110>)

주의 발치에 앉아: 성령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을 강조하셨다 (10:39). 마리아가 성경에 나올 때 마다, 성령님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음을 강조하신다 (눅 10:39; 요 11:32; 12:3).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을 때에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끌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위한 ‘대화의 재료’를 준다. (‘말씀을 기도하며 읽기’ 강의 노트 참고 <https://mikebickle.org/resources/resource/3110>, 노아 미니스트리 사이트, 기도의 성장 파트 2, 제 7강 참조)

- C. **One thing is needed:** As we sit at the feet of Jesus, we position ourselves to receive God's help.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다.

- D. **The good part:** Jesus settled the issue of how important this is by calling this lifestyle good.

좋은 편: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방식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정리해 주셨다.

- E. **Choosing:** Jesus declared that Mary chose this lifestyle (v. 42). We must also choose it. No one can choose it for us. Cultivating a heart of extravagant devotion to Jesus takes time and effort.

택하였으니: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였다고 선언하셨다 (42 절). 우리도 그것을 택해야만 한다. 누구도 우리 대신 택해주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한 아낌 없는 헌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과정이다.

- F. **Not taken away:** Jesus prophesied that Mary's heart of devotion would *not be taken away* from her (v. 42). Grace for a lifestyle of extravagant devotion could be sustained throughout her life *if she continued to choose it*.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her life will be rewarded (1 Cor. 3:14).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된 마음이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42 절). 아낌 없는 헌신의 삶을 위한 은혜는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한다면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러한 삶에 대해 상급을 받을 것이다 (고전 3:14).

VI. PRACTICAL DISCIPLESHIP: GROWING IN PRAYER (LK. 11:1-13)

실제적인 제자도: 기도의 성장 (눅 11:1-13)

- A. After teaching on some foundational aspects of discipleship—to love our neighbor (10:25-37), devotion to love Jesus (10:38-42), Jesus went on to teach about growing in prayer (11:1-13): basic principles about prayer (11:2-4), a parable about God’s willingness to answer prayer (11:5-8), with promise that God answers prayer (11:9) and confidence in God’s readiness to answer (11:10-13).

예수님은 제자도의 근본적인 측면, 곧 이웃을 사랑하고 (10:25-37),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 (10:38-42)에 대해 가르치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의 성장 (11:1-13)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기도의 기본적인 원칙 (11:2-4),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비유 (11:5-8),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11:9),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것에 대해 (11:10-13) 가르치신다.

- B. The disciples did not ask Jesus to teach them to preach, but to pray. What a gift and privilege it is to learn about prayer from the One who is the greatest teacher and who had the greatest prayer life!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설교하는 법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기도하는 법에 대해 물었다. 가장 위대한 선생이시며,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사신 분에게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선물인가!

¹Now it came to pass, as He was praying in a certain place, when He ceased, that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rd, teach us to pray, as John also taught his disciples.” (Lk. 11:1)

¹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눅 11:1)

- C. Luke 11:1-13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ssages in the Bible on the subject of prayer.

눅 11:1-13 은 성경에서 기도를 주제로 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

- D. Jesus gave us a model of prayer (Lk. 11:2-4) based on what God is like and on the nature of the kingdom. It covers all the foundational basics that are expanded upon throughout Scripture. He pointed out six requests that we should pray. The first three focus on God’s glory (His name, kingdom, and will). The second three focus on man’s needs (physical, relational, and spiritual).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기초로 한 기도의 모델 (눅 11:2-4)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근본적인 기본 진리 모두를 다루고 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여섯 가지 간구에 대해 말씀하셨다.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 나라, 그리고 뜻)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인간의 필요 (육신적인, 관계적인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

²... “When you pray, s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³Give us day by day our daily bread. ⁴And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is indebted to us.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Lk. 11:2-4)

²...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한글킹제임스흠정역] ³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⁴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눅 11:2-4)

- E. **Our Father:** Jesus' teaching on prayer starts with focusing on who God is—our Father in heaven. "In heaven" points to the Father's powerful transcendence. Israel saw God as their transcendent creator and King. They trembled before His great power. Jesus taught them that God their creator was also their Father. He combined two ideas— God is both *personal* and *powerful*. Jesus set the context of personal intimacy with God within His power, sovereignty, and majesty.

우리 아버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대한 초점으로 시작한다. '하늘에 계신'은 아버지의 능력있는 초월성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초월적인 창조주와 왕으로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떨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이 두 가지 개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자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로 합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친밀함이라는 내용을 하나님의 능력, 주권, 그리고 위엄이라는 배경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 F. **Petition #1 Praying for God's name to be hallowed:** This petition is that God's majestic name be hallowed, or acknowledged as holy, and that it be revealed to us and through us. God's name refers to His person, character, and authority. God-centered Christianity prays *hallowed be Your name*, or "Help us to honor Your name." We pray, "Work in us that we might acknowledge Your greatness."

간구 #1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간구는 하나님의 위엄있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혹은 거룩하다 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되며 우리를 통해 계시되길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 성품, 그리고 권위를 의미한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가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 G. **Petition #2 Praying for the kingdom to come:** This petition asks for an increase of the kingdom, which is the place where God's Word is obeyed, His will is done, and His power expressed. The kingdom is manifested when the sick are healed and demons are cast out (Mt. 11:5; 12:28). This is a prayer for God's saving power to be openly manifested on earth in a greater measure.

간구 #2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나라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갈 때 나타난다 (마 11:5; 12:28).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더 커다란 분량으로 이 땅에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기도다.

- H. **Petition #3 Praying for God's will to be done:** This request includes our personal obedience in the context of His kingdom purposes. His will consists of His commands and our ministry assignment.

간구 #3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염두에 둔 우리의 개인적인 순종 또한 포함한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명령과 우리의 사역과 임무들을 포함한다.

- I. **Petition #4 Praying for our daily provision:** This request is for our *daily* provision, protection, and direction (spiritual and physical). *Bread* refers here to our natural needs. We do not pray to inform God of our needs (Mt. 6:7-8), but to enhance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to express gratitude.

간구 #4 우리의 매일의 공급을 위한 기도: 이 간구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공급, 보호, 그리고 인도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양식은 우리의 자연적인 필요를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 6:7-8),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도한다.

- J. **Petition #5 Praying for forgiveness:** This petition concerns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people. The proof that we have been forgiven is that we are compelled with gratitude to forgive others.

간구 #5 용서를위한 기도: 이 간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다.

⁹*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to cleanse us from unrighteousness. (1 Jn. 1:9)*

⁹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 K. **Petition #6 Praying for deliverance from evil:** The sixth petition has caused much discussion. Since God never tempts anyone with evil (Jas. 1:13), why would we ask God not to lead us into temptation? We pray that God leads us to escape from tempting situations (I Cor. 10:13).

간구 #6 악에서 구하소서: 이 여섯 번째 간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하나님은 누구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약 1:13),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셔서 유혹이 되는 상황을 피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1. Jesus was using a figure of speech to express the same thing in two different ways—leading away from temptation and being delivered from, or escaping, evil. This is clear when we read both parts of the one request—*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deliver us from evil*. The second half of the request defines positively what the first half expresses negatively.

예수님은 비유의 언어를 사용하시며 동일한 내용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유혹에서 건지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것 혹은 악으로부터 피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읽으면 명확해진다.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에서 건지소서. 이것은 처음에 부정적으로 말한 것을 다시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 Jesus urged the apostles to pray that they enter *not into temptation* (Mt. 26:41; Lk. 22:40).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셨다 (마 26:41; 눅 22:40).

L. The parable of the persistent friend at midnight (Lk. 11:5-8)

밤중에 찾아온 끈질긴 친구에 대한 비유 (눅 11:5-8)

⁵... “Which of you shall have a friend, and go to him at midnight and say to him, ‘Friend, lend me three loaves; ⁶for a friend of mine has come to me on his journey...’ ⁷he will answer...and say, ‘Do not trouble me; the door is now shut,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not rise and give to you’? ⁸I say to you, though he will not rise and give to him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his persist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as many as he needs. (Lk. 11:5-8)

⁵...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⁶내 벗이 여행중에 내게 왔으나...⁷...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⁸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눅 11:5-8)

1. Jesus taught His disciples how and what to pray (11:1-4). Here He gave them confidence in prayer. Persistence in prayer manifests our confidence in God—it is not about overcoming God’s reluctance to answer us. This is not about persevering in prayer until God eventually gives in. We have confidence in His leadership when He delays to answer our prayer.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치셨다 (11:1-4). 여기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나타내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기 꺼리는 것을 이겨먹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끝내 포기하실 때까지 기도를 지속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 응답을 지연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 확신해야 한다.

2. We are to pray with perseverance for God’s help and maintain our dialogue with Him. The Father uses prayer to draw us into deeper relationship with Himself and to produce in us gratitude, humility, and love. He delays in answering some of our prayers knowing that it strengthens our conversation with Him. God is aware of and concerned about our needs.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감사와 겸손, 그리고 사랑을 열매맺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가 그분과의 대화를 더욱 견고히 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어떤 기도들에 대한 응답을 미루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며 관심을 갖고 계시다.

3. The man’s shameless persistence showed how much confidence that he had in his friendship with the reluctant man who initially refused to get out of bed (11:7). Jesus was contrasting God’s gracious attitude as our Father with the reluctant friend’s attitude.

이 사람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끈질김은 처음에는 침대에서 나오기를 꺼려했던 친구 (11:7)에 대한 그의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태도를 이 꺼려하는 친구의 태도와 대조하셨다.

M. He called us to ask and keep on asking, to seek and keep on seeking, and to knock and keep on knocking (11:9-13). The verbs are in the continuous present tense, indicating that we are to do this consistently. Our view of God is important—He is our Father who gives good gifts to His children.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되 계속 구하고, 찾되 계속 찾으며, 두드리되 계속 두드리라고 하셨다 (11:9-13). 여기서 동사는 현재 진행형 시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중요하다. 그분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⁹...**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¹⁰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¹¹If a son asks for bread from any father among you, will he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s for a fish, will he give him a serpent instead of a fish? ¹²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he offer him a scorpion? ¹³If you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Lk. 11:9-13)

⁹...**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¹⁰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¹¹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¹²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¹³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9-13)

1. **Ask:** for God’s supernatural intervention to touch you and those you are in tension with

구하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과 문제가 있는 자들을 만지시도록 구하라

2. **Seek:** for God’s wisdom in facing obstacles and opportunities, and to solve tensions

찾으라: 하나님의 지혜로 현재 직면한 장애물들이나 기회들을 대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으라

3. **Knock:** to overcome obstacles (closed doors) that hinder our growth and/or reconciliation

두드리라: 우리가 성장하고 화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닫힌 문들)을 극복하도록 두드리라

N. **Everyone:** All who ask in God’s will are sure to receive, all who seek will find, and all who keep knocking will eventually see the opening of the door and the obstacle removed. We are to persevere, knowing that we will be answered in God’s timing and way. Paul called us to pray with perseverance (Eph. 6:18), to “strive” (Rom. 15:30), “labor fervently” (Col. 4:12), and “wrestle” (Eph. 6:12) in prayer. When we greatly prize something, then we search for it as hidden treasure.

(구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모든 이들은 분명히 받을 것이고, 찾는 자들은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들도 결국 문이 열리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응답될 것을 알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계속해야 한다. 바울은 항상 힘써 기도하고 (엡 6:18), ‘열심’으로 기도하고 (롬 15:30), ‘애써 기도하며’ (골 4:12), 기도의 ‘씨름’ (엡 6:12)을 하라고 초청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추인 보물처럼 찾을 것이다.

¹⁸ *Praying always...with all perseverance and supplication for all the saints. (Eph. 6:18)*

¹⁸ 모든 기도...하되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엡 6:18)

¹³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arch for Me with all your heart. (Jer. 29:13)*

¹³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렘 29:13)